

‘군공항 이전’ 후속절차 담보…주민투표 11월 이후로

무안군, 1조원 지원사업 구체화 안돼
성동지구 개발·호남지방항공청 검토
‘순천대 의대 선정’ 지역 민심 악화 영향
연내 ‘최종 이전부지 확정’ 일정 촉박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차질 우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가 무안군 망운면으로 확정된 지 한 달 가까이 됐지만 1조원 규모의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비롯한 후속 절차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가 선양여와 국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군공항특별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고 있는 데다,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발굴과 재원 분담 협의도 마무리되지 않아 오는 10월께로 거론됐던 주민투표는 11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무안군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특별시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지원계획을 수립한 뒤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된다.

특별시와 무안군은 매주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무안군은 지원사업으로 국가산단과 항공 MR O센터를 비롯해 성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호남 지방항공청 신설, 남악신도시-영암 대불간 도로 신설, 국립수산물자원·낙지자원조성센터 건립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시는 당초 이달 중 지원사업 발굴을 마무



붉은 상사화의 유혹 21일 붉게 물든 상사화가 장관을 이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 불갑사 일원에서 관광객들이 꽃길을 거닐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불갑사 상사화축제는 오는 27일까지 계속된다. /조영권기자

리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절차가 늦어지면서 10월부터 구체적인 지원사업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순천대가 선정된 이후 불거진 동·서부권 갈등이 양측의 협의 여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1조원 가운데 2천100억원 규모의 국가사업은

무안군과 중앙정부가 협의 중이며, 일부 사업은 이미 추진되고 있다. 나머지 사업은 관련 법 개정과 무안군의 세부 사업 발굴을 거쳐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현재 선양여 방식과 국고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와 특별시 간 1조원 지원사업의 재원 분

담률도 확정되지 않았다. 양측은 분담 방안을 조율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재원 분담 문제는 추석 이후 10월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6차 협의체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협의체 논의를 법 개정과 병행할지, 개정 이후 진행할지는 국방부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의 선결 조건으로 요구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1조원 지원사업과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예비후보지로 지정된 상태로 특별시 관련 부서와 무안군이 별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사업시행자가 선정돼야 후속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첫 회의 일정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 지원위원회 심의를 위해서는 무안군의 지원사업안 초안이 먼저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별시는 주민투표에 앞서 지원사업을 확정·공고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10월 안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당초 10월께로 거론됐던 주민투표는 11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마저도 지원계획 확정과 지원위원회 개최 일정 등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정부와 특별시가 목표로 한 연내 최종 이전부지 확정까지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다.

군공항 이전 후속 절차가 늦어질 경우 군공항 종전 부지에 조성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군 기능을 다른 기지로 임시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시 관계자는 “10월 중 지원사업 세부안을 마련해 주민투표 전에 지원위원회 심의와 공고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10월 주민투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11월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변은진·무안=김성호기자

나주서 국내 현존 최고 화약 무기 ‘황자화통’ 발견



국립나주문화연구소는 나주 금성산에서 발견된 ‘황자화통’을 조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화약 무기임을 확인하고 21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황자화통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성산서 지뢰 탐지하다 우연히 찾아
새겨진 28자는 제작 감독자·장인 이름
고려 말-조선 초 제작 추정…보물 추진

영산강 유역의 군사 요충지였던 전남광주 나주 금성산에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화약 무기인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됐다.

고려 말-조선 초에 만들어진 소형 화약 무기 실물이자 한국 화기 발달사를 새롭게 쓸 보물급 문화유산으로 관심이 쏠린다.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21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나주 금성산에서 발견된 ‘황자화통’(黃字火筒) 실물을 공개했다.

화통은 화약을 사용해 화살이나 탄알을 쏘아 내보내는 무기로, 당시 주력 무기였던 활보다 사거리, 파괴력 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 세종(재위 1418-1450) 이후에는 주로 ‘총통’(銃筒)으로 불렸다.

나주 황자화통은 2023년 11월 군부대가 발견한 유물이다.

금성산 정상은 1963년부터 공군 방공포대가 주둔해 왔는데, 등산로를 조성하기 위해 군이 지

뢰를 탐지하는 과정에서 9부 능선 암벽에서 우연히 찾아냈다.

발견된 유물은 길이 23.75cm, 구경 1.66cm이며 무게는 1천32g이다. 나무 손잡이를 끼웠을 때는 약 12m 정도로, 개인이 휴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 결과, 황자화통은 발사체가 나가는 총부리, 화약을 넣는 약통, 손잡이 나무 자루를 끼우는 모병(冒柄)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모병 부분과 총부리에는 총 28자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명문은 ‘정사십이월일 연 황자화통 중일근십 사람 감조녹사안휴보 장인석’(丁巳十二月日鍊黃字火筒 重一斤十四兩 監造錄事安休甫 匠人石)으로 판독된다.

이를 해석하면 ‘정사년 12월에 황자화통을 만

들었다. 무게는 1근 14량이다. 감독자는 녹사(錄事) 안휴보(安休甫)이고, 장인은 석(石)이다’라는 글이 된다.

허민 국가유산정책관은 “우리 화약 무기의 초기 역사를 실물로 확인하고, 그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제작 시기로 언급된 ‘정사’ 년은 문헌 기록과 기존에 알려진 화약 무기 등을 고려하면 고려 말인 1377년 혹은 조선 세종 대인 1437년으로 추정된다.

역사서 ‘고려사’(高麗史)에 따르면 우왕(재위 1374-1388) 대인 1377년은 무신이자 무기 개발자였던 최무선(1326-1395)의 건의로 화통도감(火桶都監)이 설치된 해다.

화통도감은 화약과 화기 제조 업무를 맡았던 관청이다.▶2면에 계속 /연합뉴스

서영대학교 · 대학원 · 서강고등학교 · 서영대학교 · 서영유치원

2년 연속

광주 취업률 1위 서영대학교

(2024~2025년 대학정보공시, 졸업자 500명 이상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 기준)

입학상담 ☎ 062) 515-5012

수시 1차 모집 : 26. 9. 7.(월) 09:00 ~ 9.30.(수) 18:00

2025년도 간호교육인증평가 5년 인증 획득

간호학과

창학 50주년

50년의 힘, 100년의 미래

전형료 무료 모바일 원서접수
< 본인 인증 필수 >